

“벼락거지 면하려다”… 단일종목 ETP로 6.3조 잃은 개미

40대, 전체 손실 규모 가장 커
70대 이상, 계좌당 평균 손실액
2994만원… 전체 평균 2.6배
‘음의 복리’로 앞으로 더 찹찹산중

2년 차 직장인 서모(30)씨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하락은 기회”라며 적금을 깨 같은 상품을 더 사들였다. 서씨는 “계속 주식창만 보니 삶이 주객전도된 느낌”이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손실이 출시 두 달 반 만에 6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손실 규모는 40대에서 가장 컸지만 계좌당 손실액은 70대 이상이 약 3000만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21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ETP 상품 출시일인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은 6조3130억원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단일 종목 ETP 손실에 절망하는 투자자 이미지

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국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미래에셋·키움·삼성·NH·한국투자·KB·신한·메리츠·하나·대신 등이다.

전체 손실 가운데 상품 매매를 통해 확정된 손실은 2조3242억원,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상품의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이었다. 평가손실은 보유 상품의 매입 원가와 8월 14일 종가의 차이를 계산한 금액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전체 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

40대는 16만5200개 계좌에서 2조53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50대가 15만8000개 계좌에서 1조8655억원, 30대가 11만7300개 계좌에서 1조912억원의 손실을 냈다.

반면 계좌당 손실액은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70대 이상은 9800개 계좌에서 29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2994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54만6000개 계좌의 평균 손실액인 약 1156만원의 2.6배 수준이다. 60대도 6만1000개 계좌에서 8059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1321만원이었다.

8월 들어서는 손실을 안고 보유하던 상품을 실제로 팔아 손실을 확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흐름도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1조9638억원이던 매매손실은 8월 14일 2조3242억원으로 보름여 만에 3604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아직 팔지 않은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4조395억원에서 3조9888억원으로 507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손실은 6조33억원에서 6조3130억원으로 3097억원 확대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하락장에서 기초자산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하락률이 더 커서다. 실제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지난 5월 27일

부터 이날까지 SK하이닉스는 약 42.31% 하락했다. 같은 기간 ‘1Q SK하이닉스선물 단일종목레버리지’는 81.98% 추락했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 특유의 복리 효과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는 일정 기간의 누적 수익률이 아닌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한다. 주가가 한 방향으로 꾸준히 오를 때는 복리 효과로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요즘처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손실과 회복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원금이 깎이는 ‘음의 복리’가 발생한다.

예컨대 주가가 100에서 하루 10% 하락해 90이 된 뒤 다음 날 10% 상승하면 99에 그친다. 하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20% 하락해 80이 되고, 다음 날 20% 상승해도 96에 머문다. 기초자산은 1% 손실에 그치지만 레버리지 손실은 4%로 확대되는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하락률이 낮았음에도 레버리지 손실률은 더 크게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손실이 커질수록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허정윤 기자



metro

대형 증권사는 회사채, 중소형사는 단기사채

신용거래용자 잔고 31조1083억 집계
단기사채 발행, 전년비 42.2% 늘어
단기조달 의존 때 시장 변화에 취약

대형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 자금 조달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조달 구조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이나 채권시장 위축으로 단기자금 차환 여건이 악화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1조1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용자 확대와 맞물려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이 늘고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단기 자금 조달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커버리지 증권사의 전자단기사채 발행 총액은 2025년 말 11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8조7000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증권업계 전체 신용공여금은 지난해 6월 말

45조원에서 올해 6월 말 63조9000억원으로 42.2% 불어났다. 이 가운데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공여금 증감과 전자단기사채 증감 간 상관계수는 중소형사가 0.38로 대형사(0.11)를 웃돌았다. 신용거래용자가 늘어날 때 중소형사의 전자단기사채 조달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대형사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재원 NICE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신용거래용자 증가에 따른 증권사별 대응 과정에서, 대형사는 회사채 발행 등의 다변화된 수단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이 높은 반면, 중소형사는 자금조달 수단이 한정되어 있어서 단기사채 발행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단기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시장 상황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 연구원은 “중소형사의 비교적 높은 단기자금 조달 의존도는 채권시장 위축이나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증권사의 차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통상 신용공여 만기는 90일 내외이지만, 신용공여

만기는 고객 및 기초자산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서 잠재적인 만기 미스매칭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에서도 ‘빚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신용용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에 무분별한 신용공여 자제와 고객 보호를 당부했다.

지난 19일 자가지본 상위 10개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중투사)들은 자율 규제에 돌입했다. 중투사들은 지난달 발표한 ‘신용용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이달 1일부터 신용공여 잔액을 자가지본의 90% 이내에서 자율 관리한다. 연내에는 신용용자 최저 보증금률을 50%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특정 종목에 대한 용자 집중관리 기준도 현행 15%에서 10%로 낮춰 특정 종목으로의 ‘쏟림 현상’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교보증권, 친환경 캠페인으로 1000만원 기부

밀원수 식재로 꿀벌 서식환경 개선

교보증권은 친환경 캠페인 ‘드림이그린레이스’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 1000만원을 환경재단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드림이그린레이스’는 임직원들이 일 상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이를 포인트로 적립해 기부하는 교보증권의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대중교통 이용, 다화용컵 사용, 중고물품 나눔 등 탄소저감 활동이 3500여건 이뤄졌다. 임직원들은 1000만 포인트 적립을 목표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기부금은 이상기후로 서식환경이 악화하고 개체수가 감소하는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밀원수 식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밀원수는 꿀벌 등 꽃가루 매개 곤충에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로, 서식환경 개선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박기영 환경재단 국장이 지난 20일 드림이그린레이스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교보증권

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증시 급락에 엇갈린 공모주 수요 예측

기업 확약 비율 중앙값 43% → 5% ‘뚝’

공모주 수요예측 결과가 기업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하반기 들어 공모기를 희망 범위 하단 이하로 정한 기업이 상반기의 두 배로 늘었고 상장 후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는 기관의 약속도 크게 줄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38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올해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41곳(스팩 제외) 가운데 32곳은 공모기를 희망 범위 상단에, 9곳은 하단 이하에 확정했다. 하단 이하 기업은 상반기 20곳 중 3곳이었지만, 하반기에는

21곳 중 6곳으로 늘었다. 공모기를 희망 범위보다 낮게 정한 3곳은 모두 하반기에 나왔다.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상반기 기업의 확약 비율 중앙값은 42.8%였지만 하반기에는 4.7%에 그쳤다. 평균 기관 경쟁률도 상반기 1013대 1에서 하반기 655대 1로 떨어졌다.

기관 경쟁률에 따라 공모가 결과도 뚜렷하게 갈렸다. 하단 이하로 확정된 9곳은 모두 경쟁률이 400대 1에 못 미쳤고, 평균은 159대 1이었다. 반면 경쟁률 400대 1을 넘긴 29곳은 모두 공모가를 상단에 확정

했다.

최근 증시 급락이 수요예측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태우 IR큐더스 매니저는 “최근 코스피가 크게 떨어지면서 공모주 수요예측에서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우려가 섞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증시가 좋을 때 상정한 공모가는 비교 기업 주가가 반ച്ച취하 논란이 맞는데, 시장이 다 같이 떨어지면 괴리가 커진다”며 “투자자들이 시장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면 공모가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기업마다 상황이 달라 모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티앤이코리아와 크리에이츠는 20~21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김아영 기자 aykim@

‘1사 1교 금융교육’ 추진

현대차증권은 지난 20일 경기도 포천 신봉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1사 1교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의 올바른 금융 인식과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감독원 주관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현대차증권 소비자보호팀 이승기 팀장과 이상준 책임매니저가 강사로 참여해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주제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소비의 기본 개념부터 저축과 투자까지 금융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혔다. 금융보드게임 ‘머니스파너’를 활용한 체험 활동도 마련해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이승기 현대차증권 소비자보호팀장이 지난 20일 경기도 포천시 신봉초등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8월 포천 신봉초등학교와 서울 아주초등학교, 화성 신백중학교 등 3개 학교와 금융교육 자매결연을 맺었다. 신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각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 성동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